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성경대학 수료식, 비전2000승전보고

오늘 찬양예배 시 전도시상식 · 감사잔치도 개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서울성경대학 수료식과 비전2000운동 승전감사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6주년을 기념하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감사잔치 순서가 마련돼 있다. ...●

◇ 성경대학 수료예배

9월에 개강하여 10주간 진행해 온 읍기반(아담반), 아가반, 다니엘반, 마가복음반, 베드로반 및 음악교실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종강을 감사하면서 수료식을 갖는다.

오늘 수료하는 인원은 총 325명이다.(수료자 명단은 3면)

◇ 비전2000승전감사

10월 5일에 시작하여 지난 주일까지 50일간 진행해 온 비전2000운동의 승전감사예배도 드린다. 비전2000운동기간 동안 성도들은 노방전도, 축호전도, 잃은양 찾기 등 전도운동과 새벽기도, 연속기도회, 다니엘 기도 등 기도운동을 전개했다. 특별히 비전2000새벽기

도회에서는 개인전도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오늘 승전보고와 전도 및 기도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 감사잔치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 회원들이 준비한 감사축제의 순서도 갖는다. 이는 교회설립제 6주년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가지는 것이다.

성경통독사경회 신청 접수

새해 성경통독사경회 참가 신청을 오늘부터 받는다.

내년 신청연휴기간인 1월 2일(금)과 3일(토)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성경통독사경회의 범위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이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를 4교시로 나누어 실시되며 이틀 간 앞에서 낭독하는 인도 목사의 음성을 들으며 눈으로 따라 읽는 동안 신약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보와 함께 배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교구담당 목사나 교육위원회 혹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직예배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거행된 제 4대 집사 안수식과 권사 취임식.

98년 순결서약식 1월 4일 거행

13세 이상 미혼 대상, 12월 14일까지 접수

교회는 내년 1월 4일 찬양예배 시 거행될 순결서약식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14일(주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미혼자로 앞으로 결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다.

순결서약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며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따라서 사전에 반지를 제작할 수 있게끔 신청서에는 자신에게 맞는 반지의 크기를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거나 교회학교의 담임 교사 혹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절제·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95년에 322명, 작년에 100명, 올해는 43명의 청소년이 순결서약식에 참가하였다.

이사야

이사야가 본 비전

1장 1절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비전을 본 것입니다.

1. 지도자 이사야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앞서 가는 사람이 바로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마치 서사와 같습니다. 이사야는 시인과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의 가문이 왕족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여 아내와 두 아들을 두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본문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선지자 아모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유다왕 아마샤의 형제 혹은 아마샤의 아들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마 이사야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의 가문은 왕족이며 이사야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풍부한 도시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용맹스럽고 두려움을 모르고 신실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또 심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예언된 책의 분량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대선지서이며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비견하는 선지자입니다.

2.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

이사야는 진정한 일꾼이 요구되는 시대에 이스라엘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 때에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두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북이스라엘보다 약 130년을 더 나라를 지탱시켜 주셨습니다.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며 이웃나라의 침략을 막아 점점 더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웃시야 왕 시대는 솔로몬 왕 이후 가장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번영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위태롭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1:1)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땅에 평화가 오자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번영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정치와 경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로 치달고 도덕은 땅에 떨어져 힘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을 탈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웃시야는 16세에 왕에 즉위하여 52년 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웃시야 왕의 결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항상 영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자 웃시야 왕의 마음은 교만의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사를 지내러 가 보니 제사장이 보이지 않자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웃시야 왕은 별궁으로 쫓겨나 여생을 문둥병 환자로 저주 속에 지냈고 왕권은 요담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보았다고 했으니 그때는 BC 759년 곧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약 90세까지 산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가 예언을 선포한 기간은 약 60~80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므낫세 왕 때에 톱에 겹을 당하여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히11:37).

3. 이사야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 당시 즉 BC 800년 경에는 메시야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야를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심판의 주로 오신다



는 것, 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6장까지는 경고와 심판의 내용으로 메시야가 오셔서 심판하시니 속히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40~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회개한 자에게 임할 회복의 은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상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이상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대, 특별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네 명의 왕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역사성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보다 늦게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언서 가운데 메시야에 대해 가장 뚜렷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배열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정과 개인이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비전2000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에

“맞아, 바로 그 찬송!”

김관홍 집사(12교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비전2000 운동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50일을 한결같이 새벽마다 교회를 향해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칭찬 받으려고 새벽전도훈련 교재의 숙제도 잘해왔습니다.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 불이 켜지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까.”하시는 목사님 음성이 들린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항할 때
주 내게 순풍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처음 부르는 듯 하는데도 낯설지 않고 짧아서인지 금세 외워졌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빨리 가겠네”

아! 그 때 바로 생각이 났다. 언젠가 들어 본 것 같다 했더니 바로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맞아, 바로 그 찬송이었다. 나 어릴 적 피난통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린 우리들이 잠들기까지 흐느끼듯 조용히 부르시던 그 노래가 바로 이 찬송가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하는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께만 애절하게 호소하시

다 잠들곤 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내 근심 걱정을 쉬없이 하시고
내 주여 어둔 영혼을 곧 밝게 합소서”
삶의 애환과 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어머니의 노래. 자식들을 향해 믿음 안에서 홀로서야 한다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 그러나 나는 30여 년을 어둠 속에서 보냈다.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없을 때 큰 믿음줍소서”
나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하늘로 향하며 “큰 믿음줍소서. 아멘.”을 되뇌이게 되었다.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은혜를 주신 다더니 오늘, 마지막 새벽에 베푼 감격과 뜨거움으로 은혜의 체험을 주시다니...

40년만에 내 귀에 다시 들린 찬송. 감추어 두셨다가 다시 꺼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처럼 여겨졌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나의 태신자인 누나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누나도 언젠가 어머니의 기도대로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

안수집사 임직식을 마치고

“폭 삶은 콩나물이 되겠습니다”

최형렬 집사(1교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를 택하셔서 서울교회의 제 4대 안수집사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난 주 임직예배 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 합니다.

섬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본받아 저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콩나물이 제 맛을 내려면 폭 삶아져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덜 삶아져 비린내나는 콩나물이 아닌 성령의 뜨거움으로 폭 삶아

진, 그래서 고유의 향긋한 냄새를 발하며 영양을 공급해주는 콩나물처럼 되도록 제 자신을 쳐 복종시키길 기도합니다.

부패한 내 옛 사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 놓아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같이 되기를 쉬임없이 기도하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 '97성경대학 수료자◇

◆ 읍기 I ◆

강민희 강풍자 고영철 김인숙 김일용 김항권 김현관 박경희 박두영 박두호 박정수 박철훈 백수남 송옥혜 오유식 오정수 왕경래 윤성남 윤찬오 이계홍 이남성 이민화 이양철 이영기 이영숙 이웅선 이정근 임훈규 정병무 최무순 하영수 홍성주 홍재식 홍정선 (34명)

◆ 읍기 II ◆

강풍자 고영철 고후덕 곽 숙 김만선 김명숙 김복녀 김상옥 김선미 김영연 김은애 김은희 김인숙 김일용 김종자 김항권 김현관 나미용 나중영 노영숙 만마리아 박경자 박두영 박두호 박우옥 박진희 박철훈 방계운 송두심 송옥혜 송영강 심재를 안창희 오정수 왕경래 원복순 유명석 유을상 윤운식 윤찬오 이계홍 이남성 이민화 이보우 이승민 이승우 이양철 이영기 이영숙 이영숙 이영희 이은희 이웅선 이해순 임훈규 정병무 정봉금 정연택 정을순 정하자 조봉환 조준택 최경애 최급자 최난수 최무순 최양혜 최종시 최희정 하영수 홍성주 홍순복 홍정선 (73명)

◆ 아가반 ◆

강풍자 고후덕 곽 숙 김복녀 김상옥 김세재 김숙자 김영심 김윤자 김은희 김재술 김찬진 김현주 나중영 노영숙 만마리아 박경자 박경희 박순봉 박우옥 박정순 방계운 배영애 송두심 송영강 신정순 안창희 양인수 오정수 오충례 오혜원 이관규 이순영 왕경래 유명석 유중관 이민화 이영희 이용자 이운진 이은희 이웅선 이종심 이해순 임송자 장양일 전완순 전인화 정병무 정봉금 정연택 정을순 정정숙 정하자 조봉환 조준택 채항석 최난수 최무순 최양혜 최영순 최형렬 하영수 홍정선 (64명)

◆ 다니엘반 ◆

강영자 권창순 김금준 김명숙 김복녀 김세재 김영례 김인순 김행근 김형모 모양순 박경자 박명석 백혜숙 신정순 심재를 오영숙 오은이 유복환 윤문자 윤복순 이규희 이남북 이병천 이승희 이영숙 이옥녀 이운진 이현주 임송자 조미영 최근자 최용걸 최일춘 한중표 홍한규 (36명)

◆ 마가복음반 ◆

강정옥 권지희 김수영 김만선 김미선 김숙자 김양숙 김영연 김용숙 김유경 김은애 김하중 김홍두 만마리아 박경자 배영애 손재경 송옥혜 신정순 여현진 오은이 원복순 위성남 이규희 이민화 이부자 이채봉 이해순 이형희 임송자 임희춘 장명순 전금자 전용순 정정옥 정숙자 정현숙 조정옥 주화인 차복녀 최난주 최정숙 허 숙 황 혼 (44명)

◆ 베드로반 ◆

고소영 고후덕 곽 숙 권순단 김남순 김미향 김선미 김영관 김영현 김은경 김정희 나미용 나상민 박경자 박두호 박명석 박성현 박양숙 배영애 신정순 오은이 왕지윤 이민화 이양철 이은옥 이자혁 이점숙 임송자 장명순 주경자 천정화 최경애 최용걸 최일춘 최재규 최재춘 한성옥 홍혜련 (38명)

◆ 음악교실 ◆

강풍자 강혜신 고소영 김명숙 김숙자 감용남 김용래 김 윤 나미용 나상민 박성현 배은희 송옥혜 오승민 왕경희 유복환 유을상 윤문자 윤숙희 이남용 이봉규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용란 이인숙 이점숙 이해순 장혜원 전완순 정병무 정연택 최무순 최정숙 한정아 허 숙 (36명)

교사대학강좌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11월 교사대학강좌가 오늘 II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소영 교수(서울신대)로 “신세대 문화와 교육심리”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게 된다.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권사회 정기총회

권사회(회장 전인화 권사) 총회가 5일(금) 오후 6시 소망부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회장임명과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며 새로 임직을 받은 권사를 환영하는 시간과 기념촬영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2월 학습·세례식

올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17일(수) I·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교육은 15일(월), 문답은 16일(화) 오후 7시 4층에서 갖는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 순례자 컬럼 ◆

국민적 회개를 촉구하면서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곧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그러나 최근엔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고 있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먼저 라는 미래예언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파탄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사회와 민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자.

건물과 교량이 무너지기 전 사회도덕과 인간양심이 무너졌고 경제파탄이 오기 전 사치와 향락이,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이 사회를 이 지경이 되게 한 것이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자기 변명이나 할 때가 아니다. 죄를 짓고 '내나이가?'하던 가룟유다처럼 죄를 은폐시켜서도 안된다. 지금은 국민적 회개와 각성이 요청되는 때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손맛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교회식당에 김장을 합니다. 12월 3일(수) I부 예배 후부터 4일(목)까지 올 겨울 동안 주일마다 옥탑층 교제의 식탁에 오를 김치를 담급니다.

동정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신임권사들이 제공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98년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들을 위해
3. 새가족들의 신앙성장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4. 나라와 민족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1998년도 교회조직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지도	부장
탁 아 부	이영희	성준경
유 치 부	신미숙	김영준
유 년 부	이상진	이영기
초 등 부	이성득	최종시
중 등 부	민영수	나희주
고 등 부	김정현	박철훈
대 학 부	박귀환	정병무
청 년 부	이만열·김정현	노문환
장 년 부	김영한	김광신
소 망 부	우심화	이남호
사 랑 부	김성숙	김태기
새가족부	이순환	오정수

▼교구위원회

교구	지도	부장
1	박귀환	오정수·임광식·이웅선
2	박귀환	정병무
3	이성득	김상철
4	이성득	김태기
5	민영수	노문환
6	민영수	민순구
7	김정현	김영준·나희주·이영기
8	김정현	김대호
9	이순환	윤봉준
10	이순환	최종시·성준경
11	이순환	박철훈·홍정호
12	이순환	김광신·이남호

▼찬양위원회

찬양대	대장	지휘	오르가니스트·피아니스트
가브리엘찬양대	정병무	허희철	안진희·안선영
할렐루야찬양대	윤봉준	박정선	조은주·정은영
임마누엘찬양대	김상철	배영준	한현숙·백송희
베들레헴찬양대	김대호	임훈규	유혜련·홍혜란
호 산 나 찬 양 대	황정임	서희숙	홍혜란
시 온 찬 양 대	김영준	강민희	양경실·김지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1월 새가족 환영회



* 11월의 새가족 *

유창근 권수현 박중운 권순이 백우기 허현숙 전해경 강성원
류제순 최은순 김소원 손수연 김경숙 여수진 김 은 송동욱
길승배 이인용 조철기 김영란 김충식 손우진 정유진 박태영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